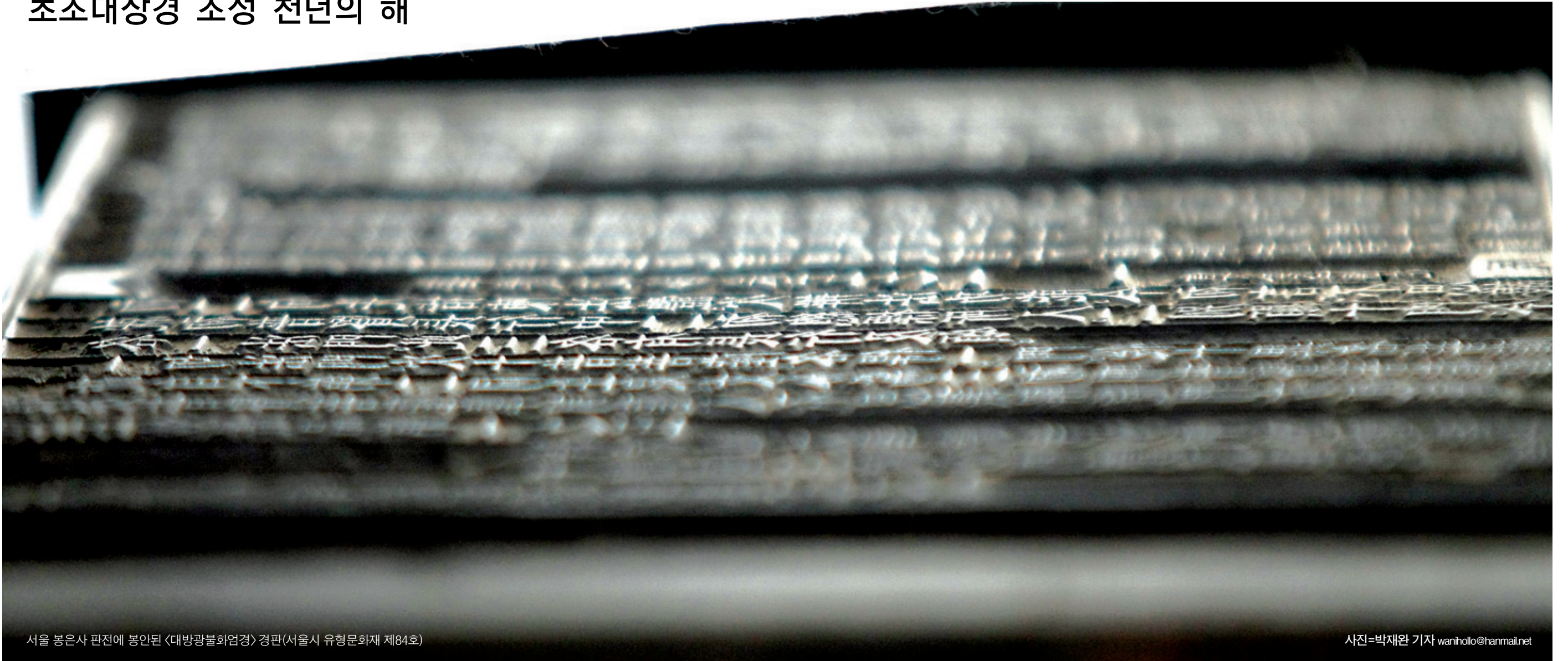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의 해



서울 봉은사 편전에 봉안된 <대방광불화엄경> 경판(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4호)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가슴에 한 자씩 새기며 사는 한해

목은하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妄道始終分兩頭)/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하지 만(冬經春到似年流)/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試看長天何二相)/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을 노닐 뿐(浮生自作夢中遊). -화명 선사

2011년은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의 해이다.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받은 고려 왕실이 종묘사직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택했던 방편이었다. 당시 왕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맡긴 채 한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부처님 말씀을 목판에 새겼다. 대장경 불사를 위해 '나'를 잊은 헌신은 기적을 불렀고 전쟁 끝에 거란은 물러났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피 흘려야 했지만 전쟁의 상흔 뒤에는 방대한 분량의 문화유산인 초조대장경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천년이 흘렀다.

지난 해 우리는 참 힘든 한해를 보냈다. 전쟁의 아픔에 비할까마는 천년 전 거란의

외침을 받아 황망했던 것과 얼마나 달랐는가를.

세계 경제가 어려운 판에 국내 경제라고 호황일 수 없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허덕여야 했다. TV를 켜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사건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바다에서 장병 46명이 수몰되는가 하면, 우리땅 연평도에 난데없이 포탄이 쏟아져 불바다가 되기도 했다.

절집으로 눈을 돌려보자. '무소유' 가르침을 전했던 법정 스님을 잃은 슬픔도 잠시, 선방 수좌 문수 스님은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 소신공양했다. 개신교에서 수년전부터 "범어사 무너져라" 기도하더니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대찰 범어사 천왕문이 불타버렸다. 봉은사 직영건으로 공개된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주지" 운운한 발언에 조계종은 1년 여를 몸살을 앓아야 했다.

MB정권 출범 초기부터 심상치 않던 종교 편향은 날로 심해져 갔다. 개신교도들은 '땅 밟기'라는 미명하에 사찰에서 무례를 저지르고 불쾌감을 줬다. 지역 개신교 단체 입김에 대구 팔공산불교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무산됐고, KTX울산역의 통도사역 부기가 성사되지 못했다. 급기야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계종과 합의해 짜놓은 템플스테이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이 공식석상에서 "불교편향이 조직적이다"라고 밝힐 만큼이니 그 정도는 미루어 짐작되기도 남는다.

G20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정부는 국격(國格)을 운운했다. 격을 따지자면 대장경의 격은 세계 어느 문화유산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많은 문화유산들이 적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건축물, 사후 세계를 보장 받기 위한 거대한 무덤 등 특징인·세력을 위한 경우가 많았다. 조성 과정에

서도 인원이 강제 동원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초조대장경은 달랐다. 18년(혹은 76년)에 이르는 조성기간 동안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해인사 소장 팔만대장경을 기준으로 16년간의 대장경 조성에 참여한 150여 만명은 단 한자의 오탈자 없이 한 자를 새길 때마다 일자삼배를 하며 한 필제로 경판을 완성했다.

대장경을 한 글자로 축약하면 '마음 심(心)' 자라 했던가. 마음이 일체 만법이요, 그곳에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원력이 담긴 까닭이다. 당대의 고려인들도 한마음으로 원력을 모았다.

우리가 대장경을 조성했던 고려인의 한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모두가 가슴 속 경판에 한 자, 한 자 일자삼배를 하는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한 해를 살아보자.

조동섭 기자 ostana@gmail.com

2011 신년특집호 48면 발행

A 종합·기획	
종단 신년법어·신년사	A7~9
새 아침에 만난 선지식 / 법산 스님	A12~13
대장경 조성까지	A16
대장경 해제와 구성	A17
B 대장경 특집	
대장경에서 배운다	
I 대장경은 민의의 표상	B2
II 대장경은 참여와 실천	B3
III 여성, <승만경>	B7
IV 거사, <금강경> <유마경>	B9
V 어린이, <반야심경>	B12
VI 청소년, <자카타>	B13
특집소설 / 나무에 새긴 마음	B16~17
미리 가 본 대장경 축전	B22

한마음으로 행복한 새해새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2011 辛卯年
Happy New Year

辛卯年 無生福樂의 문이 열립니다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자 승
중앙종회의장 보 선 교육원장 현 응
호계원장 법 등 포교원장 혜 충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